



맞춤형 인테리어 자재, ER 버틀러

Simply Spectacular

뉴욕의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는 인테리어 자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축물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재에 화려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였다.

ER Butler & Co of New York takes an artistic, extravagant approach to creating architectural fixtures. What might otherwise be commonplace or unnoticeable instead become works of decorative art.

경첩, 자물쇠, 손잡이, 걸쇠, 굴대까지,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자재에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고서야 그런 부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일 터. 하지만 이 작은 장식들이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길 원하고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길 바라는 이들이라면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가 해답이 될 수 있다.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는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 탄생시킨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Hinges, locks, doorknobs, latches, mounts, fasteners and spindles — these are small details of interior design that the average person rarely contemplates. However, for those who want these small details to serve as accents, to be works of decorative art in and of themselves, there is ER Butler & Co, producer of a myriad of luxurious, meticulously designed and researched architectural fixtures.

법고창신(法古創新)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학 학위를 받은 레트 버틀러는 1990년 뉴욕에 회사를 설립했다. “아버지께서 뉴욕에서 골동품 딜러로 일하셨는데, 뭐든 예스러운 물건을 참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고객 중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를 도와 오래된 골동품을 수리하고 작은 부품을 교체하는 일을 했지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인테리어 분야로 진출하셨고, 교체하는 부품에 문짝과 창틀까지 포함됐죠.” 버틀러의 말이다. 결국 부친이 은퇴했을 때 기존의 고객들은 아들인 그가 공백을 채워주길 바랐고, 버틀러는 자연스럽게 기업을 이었다.

레트 버틀러는 19세기에 설립된 유서 깊은 철물점을 여럿 인수했다. 아버지를 닮아 옛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옛 물건을 참고해 제품을 만드는 건 너무도 당연했다. 그는 오래된 업체들의 디자인과 설계도 원본을 구입하고, 공구 세공법 관련 서적과 금형(金型) 등을 사들였으며, 미국과 유럽 지역의 인테리어 제품 카탈로그만 4만 권이 넘게 모았다.

풍부한 자료와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자재를 설계하고 일대일 맞춤형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다 보니 회사의 고객 명단도 화려하다. 빌 게이츠, 오라클의 최고경영자 래리 엘리슨, 록 스타 레니 크래비츠 등이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의 고객. 빌 게이츠를 위해서는 프랑시스 골동 단검의 손잡이에서 착안한 문고리를 디자인했고, 레니 크래비츠를 위해서는 북방 족제비 털 가죽으로 문고리를 만들기도 했다. 버틀러는 준보석부터 산호, 자개 등 다양하고 특이한 소재 활용에 일가견이 있다.

제품의 제작 과정은 많은 부분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중시한 황금비율을 엄두에 두는 것이 시작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죠.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적절한 디자인이 나오고 비율이 잘 맞췄으면 그제야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 시점부터 제작자의 느낌과 감성, 의지가 결합되어 정밀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버틀러의 설명이다.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의 본사와 전시장은 19세기에 세워진 격조 높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공장은 브루클린에 있는데, 내부에 약 1만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다. 공장의 각종 기계설비 가운데 철판을 자를 수 있는 가압 워터제트 절단기도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설비는 3차원 레이저 프린터인데, 청동이나 다른 소재의 문고리를 문자 그대로 찍어낼 수 있다. 대중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제품이라도 맞춤 제작해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전통 방식과 현대적 기술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제작이 완료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품의 마무리는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치도록 하죠. 직접 광



Rhett Butler founded his company in New York City in 1990 after finishing a graduate degree in architecture at Rice University in Texas. “Originally working in New York as an antiques dealer, and later working for interior designers, my father had a passion for all things old,” Butler says. “As a young boy, I helped my father to repair and refurbish antiques, including the fittings. As the years went on, and my father began to work on interiors, the fittings began to include door and window hardware.”

Butler took on his father's clients after the latter retired and started his own company. He purchased the assets of several hardware companies that dated back to the 19th century, when making these sorts of fixtures was becoming something of an art form. In addition to acquiring the designs, original drawings, tooling and molds from these historic companies, Butler also compiled a library of more than 40,000 American and European trade catalogs from as far back as the 1600s, and has an extensive collection of antique architectural fixtures.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ER 버틀러 전시장. 첨단 장비로 제품을 만들더라도 마무리하는 건 사람이 손을 거친다. 청동과 상아로 만든 촛대는 디자이너 테드 뮐링과 협업했다. 뉴욕 트윈드 법원의 ER 버틀러 손잡이(왼쪽 페이지부터 시계 방향으로).

(Clockwise from opposite) ER Butler & Co's Boston showroom; Butler uses high-tech machinery but each piece is finished by hand; candlesticks made of bronze and fossil ivory, part of a collaboration with Ted Muehling; a doorknob made for New York's Tweed Courthouse.

택을 내고, 수작업으로 마감해 오래된 느낌을 담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제품에 영혼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했을 때, 브루클린의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 공장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버틀러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제품 제작 공정을 사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공 작업실을 만들고, 도자 스튜디오와 가죽 작업 스튜디오도 만들 계획입니다.” 버틀러의 말이다. 여염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제품들이 ER 버틀러 앤드 컴퍼니에게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생활 속 작은 부품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이들의 비결이다. ● 글 맷 플레밍

© ER Butler & Co

A Delicate Balance Armed with this breadth of knowledge and research findings, Butler designs and manufactures custom-made fixtures for an impressive client list, which includes the likes of Bill Gates, Oracle Corporation CEO Larry Ellison and rocker Lenny Kravitz.

For Ellison, Butler built shoji handles with invisible latching mechanisms for his 16th-century feudal Japanese estate, while for Gates he designed door handles inspired by the grip of a French antique dagger. For Kravitz, meanwhile, Butler created doorknobs covered with ermine pelt. Butler is not afraid to use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semi-precious stones, coral, mother-of-pearl, and all types of metal and wood.

The majority of Butler's designs are historically based and many stage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re done the old-fashioned way. “When the design feels right and the proportion feels resolved, the use of new cutting-edge technology begins. From this point moving forward, feelings and emotions, the desire to make something interesting and beautiful translate into

precision and usefulness,” he says.

The company headquarters and showroom are housed in a 19th-century building, which used to serve as the silver manufacturer for Tiffany & Co in Manhattan. His company's factory is located in Brooklyn. The machinery here includes a pressurized water jet that can slice through steel and, most notably, a 3D laser printer, which can, for example, literally “print” doorknobs made of bronze.

Thanks to this technology, Butler is able to create and customize almost any type of hardware you can imagine. The possibilities are almost endless.

However, Butler carefully balances the use of traditional methods with state-of-the-art technology during manufacturing. He says, “Once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omplete, the process returns to where it began — hand polishing, hand finishing, hand antiquing and hand waxing. These are the final steps necessary to imbue the product with its final personality: literally from our hands to your hands.” ● By Matt Fleming